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연중 제16주일 (농민 주일)

2024년 7월 21일 / 제647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주일 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드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유연호 제1독서 김지용 제2독서 홍순미 / 입당 479 봉헌 510, 215 성체 180, 153 파견 6
Narrator Augustine Sung 1st Reader Chris Sigua 2nd Reader Bernard Kim

입당송 | 시편 54(53),6,8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제1독서 | 예레 23,1-6

화답송 | 시편 23(22),1-3,7,3,4-45.6(◎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 에페 2,13-18

복음환호송 | 요한 10,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음 | 마르 6,30-34

영성체송 | 시편 111(110),4-5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주일학교 및 영어미사 안내]

07월 21일	주일학교 NO	Fr. Bong
07월 28일	주일학교 NO	Fr. Mark
08월 04일	주일학교 NO	Fr. Peter
08월 11일	주일학교 NO	Fr. Jim



“기도 부탁드립니다.”

Yong Ah Lee, 윤정의 알폰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테레사,
김난수 로사, 이형숙 한나,
주종남 바오로, 이경희 에우세비아, 이동식 토마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멈추어서 가만히 머무름

잘 쉬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의미 있지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쉬는 것만이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잘 쉴 수 있는지 우리 사회는 이제야 제대로 된 고민을 시작한 듯 합니다. 그러나 잘 쉬는 것에 대한 관심과 이를 위한 선택이 새로운 장소, 낯선 문화, 새 상품을 소비하는 것으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 쉬는 것’이 ‘다르고 좋은 것을 소비하는 것’으로 대체될까 걱정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파견에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마르 6,31)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군중들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할 만큼 일로 소진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은 조금도 쉬지 못하는 듯합니다. 자리를 옮겨간 그들을 보고 많은 사람이 다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쉬지 못하시고 다시 일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에서 사용된 ‘휴식’이라는 성서 단어는 우리말의 ‘쉬고 숨 쉬는 것’(休息)과 의미가 다릅니다. 원어의 의미를 풀자면, ‘거기에(ανα) 멈춰서 머무르는 것(παύω)’입니다. 이 맥락에서 보면 사실 예수님은 못 쉬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의 고통을 가엾게 보시며 ‘그들의 삶에 멈추어 서서 머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고

통과 갈망 앞에 멈추시어, 그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진정한 휴식을 취하신 것입니다. 쉬려고 하시다가 못 쉬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보고 그 아픔을 채워주며 삶을 나누는 진정한 의미의 ‘휴식’(ἀναπαύω)을 하십니다.

우리가 찾는, 잘 쉬는 방법에 대한 생각도 여기서 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삶 속에서 ‘나’의 목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가 있어야 그 원래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에, ‘나’만을 만족시키는 것만으로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 없는 휴식은 늘 목마르며, 공동체의 현실과 관련 없는 섬은 공허한 자기만족에 그쳐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그러하셨듯이, 내가 멈춰서 머물며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곳은 나의 사랑을 원하는 ‘가엾은 너’와 이를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우리를 당신의 섬으로, 너와 내가 주고받을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이한석 사도 요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p>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준 침, 한약, 체중조절, 통증조절, 체질감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 STAR태권도 STAR TAEKWONDO 하성곤 요제프 (925)404-9765 1490 N. Vasco RD, Livermore StarTaeKwonDo.com MasterHa@StarTaeKwonDo.com</p>
<p> N² ART & DESIGN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p>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 탐탁 부동산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p>미술교실 전통민화 • 수채화 • 드로잉 • 아크릴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우리는 미사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기쁜 소식을 내 삶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모습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쁜 소식을 ‘듣는다는 것’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과 관련하여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의 본래적인 존재 방식을 들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들음은 자신에게 말 건네진 것에 대해 스스로를 소집하는 모습이며, 주의를 기울이며 따르는 모습이 됩니다(E. Kettering, N ä he, Das Denken Martin Heideggers, Neske, 1987 참조). 그러하기에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 무언가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통하여 듣는 모습입니다. 또한 그럴 때 우리는 그 들음이 이해의 차원을 넘어 깨달음의 차원으로 넘어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듣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과 존재로 들을 때, 그 들음은 깨달음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야말로 힘겨운 내 삶에 진정 필요한 가르침이고 진리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가 나에게 진정 ‘기쁨’으로 다가옴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믿음이 조금씩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쳤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기쁜 소식을 ‘살아간다는 것’과 관련하여 진정으로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그 깨달음을 살아갑니다. 아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이 회복됨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운동하고자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에게만 기쁜 것은 참으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쁘는데 함께 있는 다른 누군가가 아직 슬픔에 잠겨 있다면 그 기쁨을 정말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간직한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고, 그 기쁨이 모두의 것이 되도록 만들 수 있을 때 그 기쁨은 행복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기쁜 소식을 듣고 깨달으며 그 깨달은 바를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가 살아 있는 또 다른 복음서가 되어 갑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이루는 모든 순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자신의 삶 속에 써내려 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인은 자신의 삶이 하나의 기도가 되게 하듯,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p>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 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SUE CHO CELL: 530-220-2848</p>	<p>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HARMONY ACUPUNCTURE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 Dublin Pediatric Dentistry & Orthodontics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Elizabeth Jihyun Kim, DDS, MS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p>	<p>COMPASS AIDEN KIM 에이든 킴 (니콜라오) REALTOR®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 DRE # 01983236 </p>
<p>West Dublin PETSMART 한국어상담가능 수의사 임경택 6960 Amador Plaza Rd, Dublin 925-644-3114 DublinCA@petsmartvetservice.com</p>	<p>James Golf Class 어려운 골프 쉽게 쉽게! Instructor: 나정태(제임스) 925-434-2659 jrha.golf@gmail.com USGTF License #: 11512</p>	<p> SUSHI HANABI 계산진 빈첸시오 조성아 데 레 사 927 Main Street A Pleasanton, CA 94566 Tel) 925-596-3645</p>



■ 7 - 8월 주요 전례 일정

- 7월 28일(주일): 꾸르실료 참가자 파견 예식 (교중미사 중)
- 8월 1일(목) - 4일(주일): 서중부 여성 제15차 꾸르실료
- 8월 1일(목) - 2일(금): 평일 미사 없음

■ 요아킴-안나회 7월 정기모임

- 일시: 7월 28일(주일), 오전 11시 - 오후 2시 30분
- 장소: Room A, 소성당
- 신부님의 특강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마태오 구역 आय�휘회

- 일시: 7월 28일(주일), 오후 12시
- 장소: 클럽 하우스 + 수영장 (3901 Appian St. Pleasanton, CA 94588)
- 대상: 마태오 구역에 속한 모든 가정
- 마태오 구역에 속한 모든 신자들이 함께 음식과 친교를 나누려고 마련된 시간이니 많이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례성사, 첫영성체, 학생 견진성사 사진 수령

- 4-5월 중에 있었던 세례성사, 첫영성체, 학생 견진성사에 대한 성사 증명서와 예식 사진이 준비되었습니다. 사무 데스크에서 픽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8차 북가주 성령대회

- 주제: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 41,10)
- 일시: 8월 10일(토), 오전 8시 30분 - 오후 6시 (점심 및 저녁 식사 제공, 베이비 시팅 제공)
- 장소: 새크라멘토 정혜 엘리사벳 한인 천주교회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 강사: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님
- 주최: 북가주 성령 쇄신 봉사자 협의회
- 참가비: \$25(Pay to the order of KSCNC)
- 신청·문의: 성령 기도회

■ 2024 - 25학년도 주일학교 등록

- 신청서 링크: www.tvkcc.org/sundayschool202425
- 문의: 성호승 어거스틴(sundayschool@tvkcc.org)

■ TVKCC 주일학교 Kick-off Event

- TVKCC Sunday School Opening Ceremonies: God's Olympics
- 일시: 8월 17일(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점심 식사 제공)
- 장소: St. Elizabeth Ann Seton Gym(JP II Activity Center)
- K - 5학년 signup link: <https://tinyurl.com/TVKCCOlympicsK5>
- 6학년 - 12학년 (leader volunteer) signup link: <https://tinyurl.com/TVKCCOlympics612>
- 신청 마감: 7월 28일(주일)
- 문의: 성호승 어거스틴(sundayschool@tvkcc.org)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577	\$347	\$1470	\$70	\$65	\$3529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남석훈(7), 박주암(70), 배성준(7), 서한승(7-9), 오택만(6), 이연호(7,8), 최원숙(7), 하창완(6)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남석훈(7), 최원숙(7), 하창완(6)

- Bishop's Appeal

남석훈(7), 최원숙(7), 하창완(6)

- 감사봉헌금 함종식

- 간식봉헌 임응준 안드레아·김은하 바울라 가정

7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아픈 이들에 대한 사목적 돌봄

For the pastoral care of the sick

병자성사를 받는 이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성사로 주님의 힘을 얻고, 모든 이에게 연민과 희망을 더욱 잘 드러내는 표징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We pray that the Sacrament of the Anointing of the Sick confer to those who receive it and their loved ones the power of the Lord and become ever more a visible sign of compassion and hope for all.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고해성사 후 나오실 때
고해소 문을 살짝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